

#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5)

##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 〈 연 재 목 차 〉

- |                          |                       |
|--------------------------|-----------------------|
|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
|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
|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
|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졸정원  |
|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 10. 세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

##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모든 사물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공간인식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회활동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내용과 표현형식을 이룬다. 중국의 고대사회는 경제적으로 볼 때 자급자족을 위주로 한 농경사회이며, 공간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자아 만족의 기본특성을 가지고 있다. 진한 시대에는 규모가 큰 원유가 많았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문벌지주계급의 산장과 별서가 성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서로 다른 역사 발전 시기의 사회경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의 입장에서 공간인식은 자연산수를 주제로 삼는 산수시와 산수화, 그리고 원림예술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 5.1 중국인의 공간의식과 원림

중국의 고전원림은 산수조경에서 공간의장 및 일련의 공간처리와 수법에 이르기까지 정(靜)과 동(動)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내포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고전원림과 다른 예술의 공통점은 모두 감성의 형태에 편중되어 있지만 오히려 감성의 경험 속에서 고전적인 이성주의의 정신으로 충만된 수많은 대립의 범주를 제시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형(形)과 신(神), 경(景)과 정(情), 의(意)와 경(境), 허(虛)와 실(實), 동(動)과 정(靜), 인(因)과 차(借), 진(眞)과 가(假), 유한(有限)과 무한(無限), 유법(有法)과 무법(無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범주는 상호 구별되고 연결되며 제약하는 것으로 예술 전반에 존재하는 동시에 인과 차, 유한과 무한 같은 것은 원림

의 독특한 것이다. 이들은 모순된 구조 속에서 상호 침투와 협조를 강조하되 배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재된 생명의 흥미를 전달한다.

중국 고대의 가장 근본적인 우주관은 도(道)로서 이것은 주역에서 말하는 일음일양(一陰一陽)이고 도가의 허무(虛無)나 자연(自然)이며 유가의 천(天)이다. 장자는 “천지(天地)는 만물의 부모인데 합쳐지면 체(體)가 되고 흩어지면 시(始)가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할 때 모두 음양의 두 기운에서 비롯되고 두 기운이 합쳐지면 만물의 실체가 되며 두 기운이 분산되면 천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인식되는 우주관은 우주를 정지, 불변 혹은 초자연의 신이 주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만물이 천지(즉, 자연)의 움직임 내지 변화의 산물이라는 소박한 유물주의의 정신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우주관에 기초를 둔 공간의식은 서양과 달리 자연의 무한공간에 대하여 모험적인 탐구와 흥족한 추구를 하지 않고 유한 속에서 무한을 관조하며 또 무한 속에서 유한으로 회귀하여 자아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왕불복, 천지제야(無往不復, 天地際也: 가서 돌아오지 않는 곳이 없고 천지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공간의식이다.

원림은 우주관념의 예술모형이다. 일찍이 유신(庾信)<sup>1)</sup>은 <소원부(小園賦)>에서 “하나의 나무가지 위에 소부가 안전한 거처를 얻었고 하나의 단지 속에 호공이 의탁할 터전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신을 전후로 한 위진남북조의 지식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나무가지나 단지라 해도 주로 자신들의 몸이 천명을 따라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는 장소라면 그만이었고 환란을 피해 현실의 도피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사대부의 예술은 협소한 표현공간 안에서 독특한 취미와 창조기교에 탐닉하기 시작했다. 양나라의 소분(蕭夔)은 “일찍이 부채 위에 산수를 그리고 지척의 거리 안에서 만리를 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림의 경우였고, 북위 장륜가(張倫家)가 자신의 원림산지(園林山池)에서 “험한 돌길은 막힌 듯이 통하고 험준한 산길은 구불구부 돌다가 다시 곧게 뻗는다. 40척이 100척 높이가 되고 10보로 천리를 간다”라고 한 것은 원림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표현의 형식은 비록 달라도 목적은 같아서 지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 깊고 넓은 예술공간을 창조하고 풍부한 예술적 변화를 담아내고자 애를 썼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므로 동진 고개지(顧愷之)<sup>2)</sup>가 회화에서 비록 “물은 넓지 않고 사람이 산보다 크다”라고 하였지만 성당(盛唐)<sup>3)</sup> 시기에 이르면 사람들은

이미 좁고 굽이진 화폭 속에 대지와 같이 심원한 건축적 투시관계를 표현해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당 시기 지식인들의 원림이 공간예술에서 “이소관대(以小觀大: 작은 속에서 큰 것을 관조한다)”라고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전기(錢起)<sup>4)</sup>는 성당과 중당의 전환점에 있던 전형적인 사람인데 사대부의 인생가치, 운명, 세상에 대한 태도가 성당 초기 사람과 크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은일과 원림이 그의 생활 속에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심원하고 적막한 원림의 공간과 경지를 감상하고 창작하는 것이 물론 중당 시기에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집착과 추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전기의 <척파부(尺波賦)>에 기술된 원림의 “방여지촌(方寸之余: 공간이 아주 작은 여지)”이나 “심상지내(尋常之內: 거리가 아주 짧은 내부)와 같은 취미에 대한 탐닉과 깊고 미묘한 분석은 이전의 사람들이 능히 몰두하고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중당 이후 “호중천지(壺中天地: 단지 속에 천지를 담는다)”라고 하는 경지는 지극히 짧은 시간내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원림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예술추구의 목표가 되었다. 중당 이후 1천년에 걸친 중국 고대 사회의 역사발전 방향이 시종일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호중천지의 공간원칙은 일단 성숙되자마자 향후 중국 고전 원림 발전에서 구체적인 예술방법과 예술취미의 기초가 되고 귀착점이 되었다.

중당 이후 더욱 구체적인 발전의 추세는 공간의 범위가 더욱 작아진택원과 정원 안에 완비된 경관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호중천지는 중당 이후 원림예술의 기본공간원칙이 되었으며 명청 시기에는 통일된 종법집권의 대제국이 점차 발전의 막바지로 치달아 원림에서도 중당부터 양송까지의 원림이 가지고 있는 호중천지의 격식을 계승하였을 뿐 또 다른 활로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명청에 이르면 호중(壺中)보다 더욱 작은 천지(天地)를 머무는 곳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완전히 옛 것을 따르는 끝없이 광활한 세계를 만들므로써 하늘과 사람 사이의 우주체계와 오랜 역사의 고도로 발달된 전통문화체계가 간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

1) 유신(513-581): 북조 북주의 문학자로서 대구와 음률의 조화, 화려한 수식을 요구하는 변려문에 뛰어났으며 저서에 <유신자집>이 있음.

2) 진의 화가. 박학다재 하였으며 회화에 뛰어났고 그의 유마침상은 중국 최초로 출현한 벽화 위의 불상임.

3) 역사학에서는 당대를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의 4개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성당은 현종 개원년간에서 대종 대력 초까지의 시기를 가리킴.

4) 전기(722-780): 당대의 시인으로 노론, 김중부, 한광, 사공서, 모발, 최형, 경위, 하후심, 이단과 더불어 대력연간에 살았던 10재자(才子)의 한사람.

라서 “개자납수미(芥子納須彌: 아주 작은 것이 수미의 세계를 담아낸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이 원림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의미와 취향이 되었다.

조형예술의 하나로서 원림은 공간형태의 형상화를 기본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다. 산, 물, 건축 등의 경관요소는 모두 일정한 공간형태와 공간관계로서 존재한다. 진한시대 궁원이 보여준 “체상천지(體象天地)”, 중당 이후의 원림이 추구한 “호중천지(壺中天地)” 등의 관념처럼 역대 원림의 발전은 공간형태의 방법을 파악하면서 구현되어 왔다. 그리고 호천의 확립 내지는 강화와 더불어 원림에서 일체의 경관요소 및 그 조직관계는 모두 그것과 상응하는 방법을 향하여 발전되었다. 결국 각종의 복잡한 경관요소도 호천(壺天) 속에서 중화(中和)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이루어냈던 것이고 사대부 자신의 의탁과 발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유일한 방향도 갈수록 자각되어 광활한 경지의 개척을 필연적으로 포기하고 전력을 다해 “이소관대”의 방법을 완벽하게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이후 수 많은 원림 창작의 실례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고전원림예술은 호천(壺天)과 개자(芥子) 속에서 장기간 생존하며 짜낸 결실이었던 것이다.

## 5.2 원림경로의 처리수법

원림경로는 원림을 유람하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통행과 기타 원림내 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로는 통로와 유람도구<sup>5)</sup>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현되는데 원림감상의 의의로 보면 그것은 경관을 편집하고 변화하는 경관의 정서를 조직하여 유람자가 유람과정에서 원림예술의 참맛을 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림과 유람자의 유람경로에서 직접 연계가 되는 것은 원로(園路)와 정점(停點)의 2가지 요소이다. 원로가 유람의 통로를 제공하고 연속적인 관상(觀賞: 즉 動觀)을 조직한다면 정점은 원림 내의 생활을 안배하고 정점 관상(停點觀賞: 즉 靜觀)을 조직한다.

### (1) 원로(園路)

원로는 통행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람자를 창조적인 경관 속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원림 경관의 구도가 완미(完美)로운지의 여부는 실제로 원로에 상대하여 전개되는 경관들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경관의 창작은 원로에서 벗어나 고립적으로 고려될 수가 없으며 경관의 조직성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원로는 유람의 유도성, 경관과의 대응성, 진행의 곡절성, 주기적인 순환성, 형태의 변환성 등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람의 유도성은 원로가 바로 유람의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신뢰하는 심정으로 원로를 따라 심오한 원림의 경계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노선의 형태 자체가 관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람노선과 감상대상물 사이의 밀접한 상응관계를 설명하는 유람의 대응성과 직결된다. 원림의 주요 풍경은 종종 사면팔방으로 돌아서 멀리서부터 가까운 곳을 보게하고 감상노선 위를 걷게 하면서 시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도록 하는 한편 경관이 연속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하여 유람의 풍경 속에서 변화무쌍한 경관을 얻도록 한다. 이러한 대응관계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람하며 행진하는 노선과 관람선이 일치하여 순서대로 차츰 유입하여 경치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람하여 행진하는 노선과 관람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만드는 방식이다. 또한 원로는 주변의 산수환경과 어우러지기 위하여 고의로 곡절의 행진을 하도록 표현한다. 그 원리는 평면의 곡절과 높낮이의 변화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원로의 배경이 유람의 진행에서 무미 건조하게 보이는 폐단을 제거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다. 이러한 원로는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대개는 소순환과 대순환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관상점을 연결하여 원래의 입구로 돌아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원로의 형태 역시 일정한 형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전화(轉化)되며 유람자로 하여금 의미심장한 맛을 느끼도록 한다.

### (2) 정점(停點)

정점은 원림의 중요한 경관이 투시되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정적인 지점으로 그 성격은 실용적인 기능을 위주로 하고 형태는 주로 건축적인 수단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요 경관과 주요 정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전체 원림배치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이것은 경관 구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요 경관과 마주한 장소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특히 연회, 경극관람 등과

5) 여기서 말하는 유람도구는 가마, 일엽편주, 말, 나귀 등과 같은 사대부의 교통수단을 지칭한다.

같은 실용적인 기능이 두드러진 청당과 같은 정점은 주거공간과의 연락이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기타 정점들은 경관의 조직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놓이도록 한다. 경관과의 관계 및 일조조건을 유리함을 고려한다면 청당이 남향을 취해야 하지만 감상의 대상물인 경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당의 좌향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남북 양쪽면을 모두 고려할 수가 있다.

### 5.3 원림공간의 처리수법

원림공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이러한 경관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에 바탕을 두되 자연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보여준다. 고대 원림의 조원가들은 차경, 장경, 역경, 협경, 대경, 첨경, 광경, 누경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 (1) 차경(借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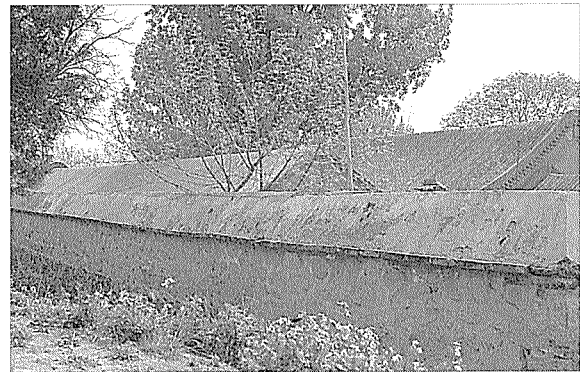


북경의 이화원에서 보이는 옥천산과 서산의 각 봉우리를 이용한 차경의 한 수법

차경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명말의 조원가였던 계성이 쓴 <원야>에는 원차(遠借), 인차(隣借), 양차(仰借), 부차(俯借), 응시이차(應時而借)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차는 원림 외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물을 내부로 끌어들이 전체 경관의 한 조성 부분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원림의 내부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원경(遠景)은 주로 원림 밖의 자연경관으로서 연이어 전개되는 산봉오리, 전원촌락의 풍광, 호수의 널찍한 수면과 같은 것을 대표적인 실례로 들 수 있으며 시야에 들어오는 경관은 모두 원림의 내부로 차용할 수 있다. 멀리 있는 경관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좋은 경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도시내에 위치한 사가원림의 경우

는 대개 누각을 지어 이러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원차는 원림 밖의 경관과 내부의 경관을 융합시켜 일체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웅장한 기백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인차는 인접한 경관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차경의 경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은폐의 방식을 이용하고 낮은 곳에 있으면 연결시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모두 원림 내부의 경관을 풍부하게 한다. 부차와 양차는 여러가지 경관에 대한 감상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미감을 제공한다. 응시이차는 빌려온 경물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경관을 담아내는 것이다. 예를들면 그것은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아침햇살과 저녁노을, 밤 하늘의 달빛을 담아내는 것이며, 일년의 사계절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봄날의 생동감, 여름의 녹음, 가을의 상쾌함, 겨울의 설경, 계절에 따른 화목(花木)의 특색을 이용하여 원림에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증가 시켜주는 것이다.

#### (2) 장경(障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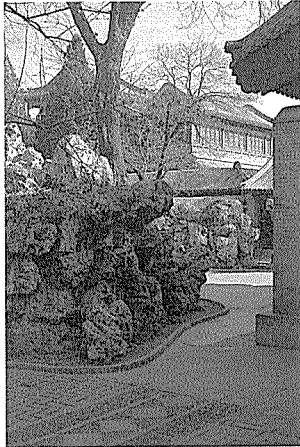


북경의 이화원 안에 있는 해취원의 가산 뒷편에 보이는 담장을 이용한 장경의 수법

원림공간에 존재하는 경관의 분리는 주로 장경의 처리방식에 의존하는데, 특히 “원중지원(園中之園)”의 조성에는 주로 이 수법이 사용하여 전체 원림을 서로 다른 취향의 경관으로 나눈다. 장경은 토산(土山)이나 석산(石山) 같은 지세의 기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나 담장, 회랑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지형, 식물, 건물을 종합하여 경관의 시선을 차단한다. 장경은 경관의 분리 이외에도 문과 담을 이용하여 변경을 감춤으로써 유람자로 하여금 원림공간의 심원함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무궁무진한 흥미거리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장경에는 허장(虛障)과 실장(實障)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실장은 간막이 성격의 장경인데 한 면의 경관시선과 유람노선을 차단하여 완전히 감싸지만 그 사이에 반드시 약간의 빈틈을 남겨두어 소통을 위한 유도의 지점으로 삼는다. 허장은 침투성

의 장경으로 막은 듯 하면서 막지 않은 침투적인 관계로 처리한다. 이것은 서로 유사한 경관, 혹은 서로 바라보면서 배경이 되는 경관의 나누는데 이용된다. 여기서 침투의 정도는 누창(漏窓)의 수량과 화문(花紋)의 번잡하고 간결함에 따라 조절된다.

### (3)억경(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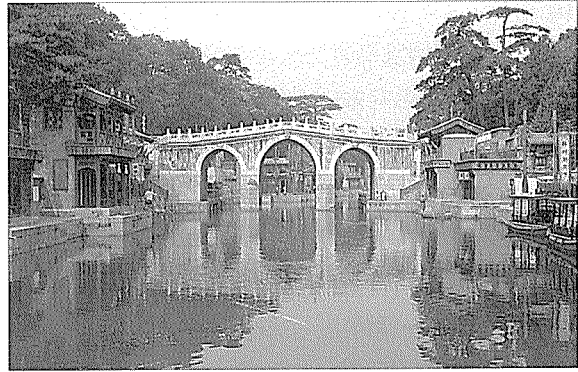


북경의 이화원 인수전 뒷편에 보이는 가산을 이용한 억경의 한 수법

고대 중국의 조원가들은 “먼저 살짝 감추고 나중에 갑자기 드러나게 하는 설계수법”을 채용하였다. 따라서 먼저 원림의 경관을 은밀히 감춰 놓음으로서 유람객으로 하여금 원림 전체의 경관을 한 눈에 다 볼 수 없게 만든 다음 구불구불한 길을 통하여 한쪽 부분을 살짝 열어 두어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마음이 한창 절정에 달하도록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한 굽이를 돌면 눈 앞이 확트이며 모든 경관을 유람객 앞에 펼쳐 놓아 경탄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법을 억경이라고 하는데 당지계(唐志契)는 《회사미언(繪事微言)》에서 “만약 드러내되 감추지 않으면 천박한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원림 경관은 산과 물이 거듭되어 길이 없는 것 같은 의심이 들면 막다른 길에서 돌연 길이 열린다. 억경의 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들면 가산으로 처리한 산억(山抑), 구불구불한 곡랑(曲廊)을 통해서 이루어진 곡억(曲抑), 식물을 이용한 나무숲으로 조성된 수억(樹抑) 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 (4)협경(狹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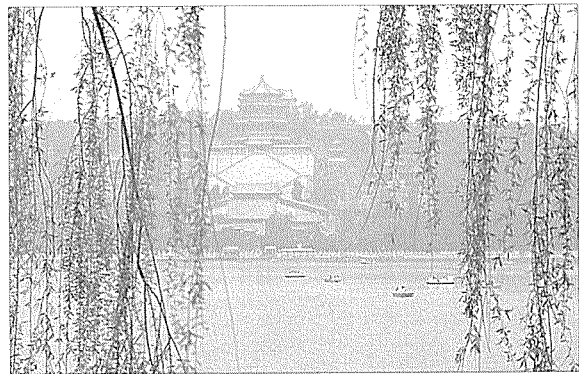
멀리 바라다 보이는 경관은 수평방향의 시선이 아주 넓기 마련이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경색이 사람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경우 고대의 조원가들은 협경이라는 수법을 자주 이용하였다. 그것은 좌우의 단조로



북경의 이화원 안에 있는 소주하에 보이는 협경의 한 수법

운 풍격을 수목이나 휴산, 건축물들을 이용하여 병풍처럼 만들고 가운데를 남겨 그림같은 원경에 부합하도록 한다. 따라서 유람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좌우의 경관 사이에 끼어 있는 통로를 거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실제로 북경 이화원의 뒤쪽에 있는 소주하(蘇州河)에서 배를 타고 가다보면 멀리 소주교를 중심으로 주요 경관이 양쪽 하안(河岸)의 기복을 이룬 휴산과 아름다운 나무숲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색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경이다.

### (5)대경(對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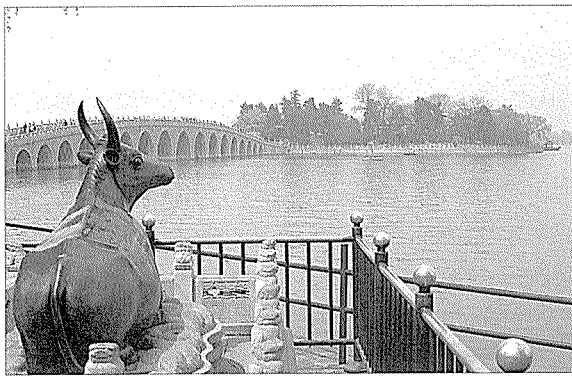


북경의 이화원에 있는 통으로 만든 소와 남호도가 만들어내는 대경의 한 수법

대경은 간단히 말해서 경물이 서로 호응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건은 “대(對: 즉 짝을 이룸)”를 형성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원림에서는 주요 관상점과 유람노선의 진행방향에 경물을 배치하여 각종의 대경을 만든다. 이것은 장경과 상반된 일종의 연결요소로서 긴장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긴밀한 대응관계와 느슨한 대응관계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명확하고 집중된 호응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개는 축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정(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청당건물의 내부에서 연못의 수면을 사이에 두고 바라다 보는 건너편에 놓여진 산수의

자연공간과 같은 경관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당 앞뒤에 조성된 정원 내부에 심어진 나무나 가산(假山)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의 대경에 속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도로나 회랑의 진행방향 혹은 문의 입구, 전환점 등 변환의 공간에서 보이는 경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배치가 자유롭고 굴곡진 사가원림은 물론 거대한 규모의 황가원림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대경은 발걸음의 움직임에 따라 경물이 달라지므로 동태적이고 부단히 변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광경과 더불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더욱 돋보이게 한다.

### (6)첨경(添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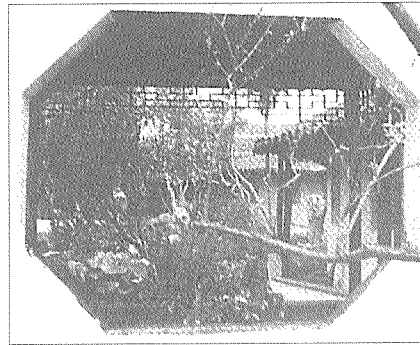


버드나무 가지를 통해 멀리 있는 불향각의 경관을 감상하도록 한 첨경의 한 수법

사람들이 북경 이화원의 곤명호 남쪽에 있는 섬안의 버드나무 아래에 서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만수산 감상할 때, 대개는 유람자의 시야 앞에 드리워진 버드나무 가지를 장식으로 삼아 생동적으로 바라본다. 만일 이러한 버드나무 가지가 없이 시원하게 탁트인 공간 사이로 산이 보인다면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단지 단조로운 곤명호의 수면뿐이다. 더구나 산 뒤에도 배경의 받침이 제거되어 원경, 중경, 근경과 같은 공간의 심도를 구분할 수 없는 매우 단조롭고 무의미한 경관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공간의 심도가 주는 느낌은 원림의 경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느낌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원림에서는 필요에 따라 첨경이라는 수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첨경에는 교목을 많이 이용하는데 꽃잎이 곱고 체형이 커야 한다.

### (7)광경(框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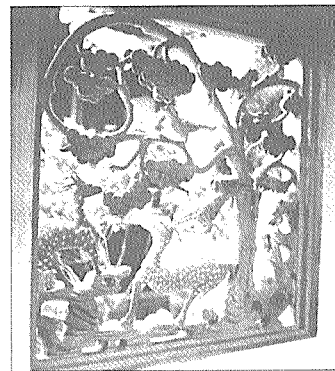
광경은 그림을 거는 액자처럼 아름다운 형상의 문틀과 창틀, 그리고 교목의 수관(樹冠)이 만들어낸 틈 속에 실제의 자연풍경을 집어넣어 유람객으로 하여금 현



소주의 유원에 보이는 광경의 한 수법

실풍경이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자연미를 예술미로 승화시키는 방법이다.

### (8)누경(漏景)



소주의 사자림에 보이는 누경의 한 수법

이것은 광경이 한걸음 더 발전한 수법이다. 중국 고전 원림에는 울타리 담과 회랑의 측면에 다양한 형태의 창문이 있어 원림 밖의 경관을 투시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아무런 창살장식이 없이 빈공간의 창문면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창문면에 다양한 도안을 취하여 투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창을 우리는 누창이라고 부른다. 누창에 사용되는 문양에는 기하학적인 도안은 물론 포도, 석류, 대나무 등의 식물, 사슴, 학 등의 동물까지도 소재로 삼는다. 옛날에는 생산활동과 거주환경의 미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름다운 화목을 집앞에 심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 사이로, 또는 불타는 듯한 석류꽃 사이로, 혹은 듽성듬성한 대나무 그림자 사이로 경관이 투과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독특한 정경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것을 창문의 창살에 직접 응용하여 그 효과를 보면서 누경은 시작되었다. ㉞